

**어디에나 있었다. 미투! (#Me\_too)**

## 서울대병원을 바꾸자

### #Me\_too, 나도 당했어...

여성을 상대로 한 온갖 성폭력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me too 운동이 문화계와 연예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권위적인 갑질 문화와 성차별로 인한 성폭력이 끓을 대로 끓어 이제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동료 성추행 교수, '복귀예정'

최근 서울대병원 000교수는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오래전 000교수는 환자의 치료 방법 중 하나라면서 환자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는 다시 병원에 복귀 예정이고 오래전 환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병원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병원은 솜방망이 징계 또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서울대병원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 우리 모두가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바꿔 나가자

지난해 노동조합은 노동자간의 차별을 넘어 평등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여성인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모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자. 그리고 우리 주위의 또 다른 미투 (#me\_too)를 인정하고 차별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함께(#with\_you) 하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Me too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 노동조합 사무실 (T : 3440~1)**

# 노동법 개악안 국회 소위 통과



26일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



26일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여의도 결의대회

## 주 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러나...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해 52시간이 넘는 노동은 불법이 된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시 병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손을 들어준 개악안

더군다나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100% 할증을 지급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현행 통상임금 50% 할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악안을 통과 시켰다. 이는 철저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재벌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휴일 근로에 100%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노위의 이번 합의는 3~4월로 예정된 판결 전에 법률을 통해 휴일 수당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악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 휴일 노동 시 할증임금

노동계 소송중	통상임금 (100%)	+	휴일근무 (50%)	+	연장근로 (5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국회 개악안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50% 가산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충분한 인력충원 계획과 특례업종 폐지 없이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몫을 갈취한 이번합의는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

故박선옥 간호사 주모 집회

잘못된 사회와 병원에 의해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합시다.

# 나도 너였다

2018. 3. 3 토요일, 18:00 ~ 20:00

광화문역 4번 출구 교보빌딩 앞